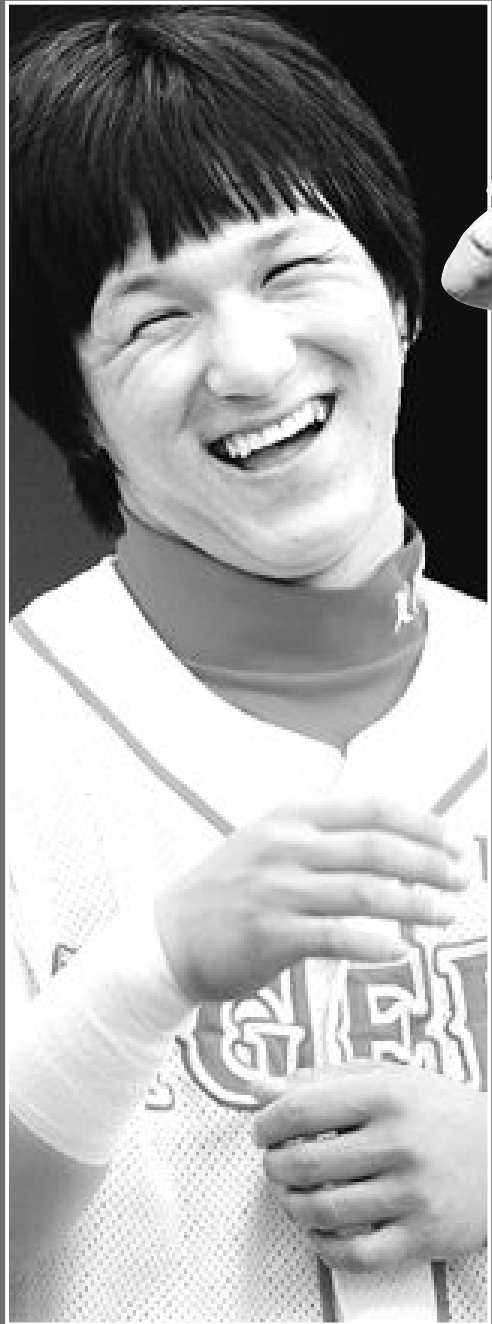


스포츠 포커스

KIA 타이거즈 루키 김선빈



“팬들이 많아져
쑥스럽지만
큰 힘이 되네요”

작지만 무서운 질주... “신인왕 넘보지마”



‘무섭게 크는 당돌한 신인’

KIA 타이거즈는 9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6명의 MVP를 배출한 야구 명가다. 그러나 지난 1985년 ‘재간둥이’ 이순철(우리 수석코치)이 신인왕을 거머쥔 이후 무려 22년 동안 신인왕과의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맥이 끊겨왔던 KIA의 신인왕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민 당찬 신인이 있다. 프로 데뷔 첫해 유격수 자리를 꿰찬 ‘날쌘돌이’ 김선빈이 그 주인공이다.

화순고 출신의 김선빈은 2차 6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계약금은 3천만원. 빠른 발과 매서운 방망이로 화순고 내야를 호령하던 4번 타자에서 140km가 넘는 공을 뿌리는 투수까지 걸쭉한 자신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한 입단이었다. 실력에 비해 한참 모자란 164cm의 키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선빈은 다른 선수보다 더 높이 뛰고, 더 빨리 달리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금은 다른 이들과 한참 작은 키 덕을 보기도 한다. 커다란 선수들 틈에서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는 김선빈의 모습에 반한 팬들이 늘어나면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부쩍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아직은 팬들 앞에서 게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해요.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고맙고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이맘때쯤 광주일보사 주최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위해 무등경기장에 있던 무명의 고등학교 선수는 지금은 명문 KIA의 유격수 자리를 지키면서 신인왕 타이틀까지 노리고 있다.

“지난해 모교인 화순고가 무등기에 참가하면서 무등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언제 이곳에서 이종범 선수와 함께 야구를 해보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종범·사재용 같은 쟁쟁한 선배들 틈에서 어릴 줄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선배들이 잘만 한 것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많이 아껴주셔서 지금은 편하게 선배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극적인 반전을 이룬 김선빈은 9일부터 시작되는 제15회 무등기대회에서 자신의 모교 화순고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고 있다. 화순고에는 친동생 김선현(16·1년) 군도 내야수로 뛰고 있다. “운동 도구를 모두 자비로 구입해야하는 등 후원이 거의 없어 힘들게 운동했어요. 후배들한테 조금씩 장비를 챙겨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성공해서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동생도 165cm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작은 편이지만 저보다 야구도 잘하고, 나중에 한 팀에서 뛰면 좋겠습니다”

김선빈은 지난 4월 2일 두산전에서 2루수로 선발 출전

해 프로에 데뷔했다.

“이용규 선배가 ‘떨리지? 떨리지?’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타석에 서기 전에는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타석에 서서 김선우 선배를 보니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번트를 성공하고 덕아웃에 들어와서야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이후 대선배 김종국과 2루수를 번갈아가며 맡아왔던 김선빈은 발데스의 퇴출로 달력 유격수 자리를 맡게 됐다. 유격수 출신인 김선빈은 2루에서 유격수로 자리를 옮긴 뒤 겁에 온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잦은 실수로 선배들에게 미안하기도 한다.

“실수 하지 말자 하면서 자리에 들어서는데 요즘 들어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주 실수가 나오고... 원래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성격인데, 더 편하게 경기를 뛰어야겠습니다.”

당당히 주전으로 뛰고 있는 김선빈이지만 지난 겨울 마무리 캠프 때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발목을 다쳤는데 신인이라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봉대를 감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다. 그러나 부상이 심해져 조기귀국을 하게 됐고, 인대가 과열된 한 두달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노앞이 깜깜했어요. 스프링 캠프에도 꼭 가고 싶었는데 이리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예상보다 회복이 빨랐던 김선빈은 꿈에도 그리던 스프링 캠프에 참가해서, 호된 훈련을 소화해 냈다.

“처음엔 코칭스태프에서 수비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야구르트 2군하고 연습경기에서 대타로 나왔다가 1타점 안타를 쳤어요. 이후에도 타격감이 좋으니까 특타를 받았습시다.”

프로에 와서 부쩍 생각이 많아지고, 성숙했다는 김선빈은 소망을 좋아하는 10대이기도 한다. 아버지께 ‘내가 연예인이냐?’는 잔소리를 들을 만큼 소꿉과 패션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라운드에서만만큼은 당당한 프로선수다.

“캠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믿음도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요. 다른 선수들의 몫이라고 부러워만 했던 신인왕에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하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찜
순천시 금당 조래동 순천 제일병원빌
대관령양푼이 동태찌개·찜 전문점
☎(061)725-6210

에은요양보호사학원
북구 두암동 무등파크 2차@정문앞
대표 정정단
☎(062)264-8866

겔리리부엌가구
광산구 월계동829-6
싱크대,불발이정,사립장,신발장,OA가구 전문
대표 김형근
☎(062)971-4697

창평국밥
북구 양산동 신흥택시건너
각종국밥 전문점
대표 이한승
☎(062)571-2566

용두보양탕
북구 용두동 일신@102동앞
보양탕,양탕 전문점
대표 박기홍
☎(062)417-6933

K중고자동차매매상사
순천시 조곡동 조곡우체국앞 승평매매단지 내
각종중고자동차 매매 및 상담 할부 알선
대표 조은경
☎(061)741-6262

인터웨딩순천
순천시 조곡동 순천역앞 7분미트 3층
우즈베크, 몽골, 팔레스타인,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초혼 및 재혼 국제 결혼 전문
대표 임대성
☎(061)743-6535

우정자동차매매상사
순천시 조곡동 순천역앞 순천동사무소 건너편
종합할부금융 중고매매 알선
대표 허여량
☎(062)755-6455

또래오래치킨송정점
광산구 송정동 모아@상가107호
후라이드, 양념, 비베뉴, 순살치킨, 신속배달
대표 이연희
☎(062)943-9456

늘푸른쌈밥
광산구 송정동 국민은행4거리
영양쌈밥, 정식, 영양보쌈정식
모듬쌈밥, 해물쌈밥
☎(062)942-5025

굿쌈(화정점)
서구 화정동 염주거리 광주은행 맞은편
삼양제넥스가 만든
건강식품 전문매장
☎(062)371-8998

희망근로자대기소
북구 오치동 오치4거리 새마을금고 옆
건축상담, 철거전문, 목수, 인부알선
대표 백형진
☎(062)268-3390

K한마음모터스
순천시 조곡동 순천역 순천동사무소 건너편
중고자동차 매매 및 상담 할부 알선
대표 박학주
☎(061)742-0020

블야성소주방
순천시 조곡동 역전 로얄인미앞
생선집, 양푼이, 갈비, 제육볶음, 야구장, 해물탕
대표 임대성
☎(061)745-2088

복돼지회퓨전소주방
광산구 송정동 세화산부인과옆
농어, 도미, 광어, 무리, 야구, 뽕, 갈비, 꿀꿀이, 짜꾸미
대표 박홍태
☎(062)941-6478

광주시지정서울환우전문매점
광산구 송정동사무소 맞은편 종합할인미트옆
순수환우만 취급합니다. 단체주문 환영
대표 강승원
☎(062)941-4744

향토국수
광산구 송정동 송정1동사무소앞
향토국수, 콩물국수, 냉면, 팔죽, 오리죽
대표 성석훈
☎(062)941-4224

문흥골세꼬시
북구 문흥동 우미1차 건너편
똥, 농어, 광어, 활어, 세꼬시 자연산 전문
매운탕, 알탕, 키조개탕, 문흥골삼합
☎(062)264-6611

월곡서에연구원
북구 오치동 오치4거리
현글, 현자, 서예 개인지도 원장직접지도
대표 박광수
☎(062)265-3707

금광모터스
순천시 조곡동 순천역 승평매매단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상담 할부 알선
대표 손형모
☎(061)741-0345

샷모델
순천시 조곡동 순천역 맞은편 순천우체국옆
대형 70평 룰안비 단체 손님 환영
각종 마다 최신 인터넷 영화설치원비
☎(061)741-0502

GI Solution
북구 두암동 하이미트위 신광중학교옆
도시가스요금 10% 정도 절감해줘 병행, 주택
각종업소 도시가스 온압보정기구 설치및판매
☎(070)7432-2922

행복한밥상
광산구 도천동 신성키센터앞
백반전문 각종모임 단체 손님 환영
대표 이순열
☎(062)955-6770

우리모밀
북구 양암동 신일 교회옆
메밀의 모든 것 자연에서 느끼는 메밀의 참맛
체인점 모집
☎(062)511-1866

청운다방
동구 계림동 계림5거리 근처 지하
대표 허재순
☎(062)234-0933

꽃돼지
서구 쌍촌동 5.18학생회관 맞은편
생선집, 돼지갈비, 불백전골
유황오리, 제육볶음, 백반
☎(062)384-9293